부다가야서 승가 포럼…2000명 운집

12월 20~23일, 33개국에서 참여
'현대 세계 부처님 가르침' 주제
달라이라마 "보리심 닦자" 강조
현봉 스님 내빈 · 금강 스님 발제

박영빈 객원기자


부다가야에서 개최된 국제 승가 포럼의 모습.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국제 승가 포럼이 개최됐다. 4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서로 다른 불교 전통간의 이해와 21세기의 불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부다가야의 마야사로바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국제 승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와 같은 테라와다 전통의 불교국가들과, 한국, 대만, 일본, 티베트, 베트남 등 대승불교 전통의 국가들이 모두 모여 총 33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이 포럼은 지난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된 팔리-산스크리트 불교공동체 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전 세계의 다양한 출재가 석학들이 모여 진행된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열띤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소강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이 아닌 직접적인 교류와 만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에서 제1회 국제 승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통간의 연결과 현대성의 포용: 현대 세계에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됐다. 토론 주제로는 율장, 37조도품, 21세기 불교의 역할, 사무량심과 상호연기의 네 가지가 토론됐으며 11개국 58명의 연사가 사흘에 걸쳐 연일 발표에 나섰다. 개회식 기조연설을 맡은 달라이라마는 "각국의 다양한 불교전통에서 가르치는 본질은 바로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닦는 것"이라면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자비롭게 도와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부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함양함으로써 세계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존재에 자비를 가지고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국 측 대표로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주요내빈으로 초청됐고, 조계종 교육위원회 회장 금강 스님 외 11명의 스님들이 참가했다. 금강 스님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가졌다. 금강 스님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진실을 중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관계에서의 이해와 연대를 강조한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지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외에 동국대학교 선학과 박사과정의 자홍 스님은 〈불교 포교에서의 현대 기술과 미디어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조계종 포교원의 최신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콘텐츠 제작 현황과 특히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성과와 작품을 소개했다. 여기서는 불교크리에이터 3기 혜장 스님의 '스튜디오 메타몽크'의 불교 3D 애니메이션이 특히 각국 스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럼은 23일 오전, 참가대중이 모여 마하보디 대탑의 보리수 아래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봉행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회향됐다.

중국 청년들, 불교에 빠지다

사찰자원봉사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


중국에서 최근 사찰자원봉사가 트렌드로 급부상중이다. 사진출처=씽크 차이나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사찰자원봉사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문화를 접하면서 중국불교의 새로운 부흥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씽크 차이나'는 중국 청년들이 불교에 친숙해져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저널리스트 데릴 림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 사찰자원봉사가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지난 5년 동안의 일"이라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일과 삶의 압박에 직면했을 때 불교의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부처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국에서 불교문화의 인기가 높아진 또 다른 사례라고 분석했다.

여행 플랫폼 씨트립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초 중국 사찰 관련 티켓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 그 중 절반이 90년대생 이후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젊은이들의 트렌드인 사찰자원봉사는 행자생활과 비슷하다. 젊은이들은 하루 최대 6시간 사찰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조석예불은 물론 독경, 사경, 불교강의 등에 참여한다. 2주간 사찰자원봉사에 참여한 리우씨는 "퇴직 후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엄격한 규율도 힘들고, 조석예불의 내용이나 매일 읽는 경전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곳에 온 이후 삶이 전반적으로 더 긍적적으로 변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데릴 림은 "젊은이들이 사찰을 찾는 것에는 일상의 탈출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평가했다. 심리상담사 웨이즈종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불교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교의 주요한 가르침인 자비를 자원봉사를 통해 익히고 마음의 균형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며 사찰자원봉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네팔 '람그람 진신사리탑' 공원 설계도 공개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 참여
70종 8만 그루 식물 심어서
생물 다양성 · 공존 의미 담아


네팔 람그람 진신사리탑 일대에 건설되는 보호 공원 설계도. 사진출처=아키데일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네팔의 람그람 진신사리탑(Ramagrama Stupa) 일대에 건설되는 보호 공원의 설계도가 마침내 공개됐다.

건축 관련 매체인 아키데일리의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의 유명 건축가 스테파노 보에리 건축설계소가 설계한 네팔 파라시 지역 람그람 진신사리탑 보호 공원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었다. 건축설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파노 보에리는 나무와 식물을 심어 건물 자체가 숲을 이루게 한다는 수직 숲 도시 개념인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람그람 진신사리탑은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물이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된 유일한 원형 그대로의 사리탑'으로 표현될 만큼 높은 보존력을 자랑한다. 용신이 탑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 아쇼카왕도 근본8탑 중 람그람을 제외한 7개 탑을 해체해 사리를 나눠 8만4000개 탑을 건립했다.

스테파노 보에리는 람그람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보리수를 중심으로 원형 정원이 에워싸는 형태로 설계했다. 특히 이 원형 정원은 생물 다양성과 공존의 의미도 담겼다.

공원의 중심은 단연 보리수와 진신사리탑이다. 이를 중심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명상 및 기도 공간을 포함한 중앙 공원을 꾸렸다. 전체 면적에는 약 70종 8만 그루의 식물을 심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전통 건축 양식과 현지에서 생산된 자재를 주로 사용했다.

스테파노 보에리는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 기도, 명상 및 평화를 위한 센터를 건립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교 경전에 담긴 매우 다양하고도 풍부한 가르침을 상징화해 람그람 주변에 여러 생명체가 공존하는 대규모의 원형 정원을 조성했다"며 "문화와 국가를 초월한 진정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파키스탄서 기원전 4C 불교 유적 발견

신당이 사원으로 전환 시기 평가
향로 잔재…법당 · 명상 공간 추정


파키스탄서 발견된 기원전 4세기경 조성된 불교유적. 사진출처=던

파키스탄 스와트 지역에서 불교가 성행하기 이전인 기원전 4세기 유적이 발견됐다.

파키스탄 언론 던은 지난해 12월 18일 "국제 및 국내 고고학자들이 최근 스와트 내 바지라 바리코트지역 일대 발굴 작업 중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323)이 스와트를 침공했던 기원전 4세기 무렵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을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발굴단장인 루카 마리아 올리비에리 박사는 "아직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성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뱀을 상징하는 나가(Naga)신과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아쇼카왕 시대에 불교가 막 유입되면서 이 구조물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며 "신당이 불교 사원으로 전환된 시기"라고 평가했다.

사원터 입구 쪽에서는 인도식 사리탑도 발견됐다. 루카 박사는 "법당 또는 명상 공간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 발견된 테라코타 조각과 향로의 잔재들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다라의 종교적, 건축적 진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 · 관장 종상

원 장 덕민 주 지 종천
선원장 종우 교 무 정수
재 무 성심 포 교 성제
사 서 성주 호 법 명강
신도회장 이영숙

대중일동

■부설기관■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 유치원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 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 어린이집
불국사 템플스테이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